

대환대출과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소비자의 탐색비용을 낮추고 금융회사 간 금리경쟁을 유인하여 대출금리를 낮추고 금융회사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대환대출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된다. III장에서는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가능성을 다루고, IV 장에서는 플랫폼화에 따른 경제력 집중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여신심사 기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대환대출 활성화로 우려되는 첫 번째 문제점은 금융회사의 대출심사 기능의 저하 가능성이다.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는 차주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금융회사가 개인신용대출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심사 기능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대환대출 활성화로 인하여 대출계약의 이동이 자유롭게 된다면 금융회사는 당초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대출심사를 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정보비대칭과 은행의 여신심사

금융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 대리인비용 등 경제적 마찰요인으로 인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꼭 맞는 금융상품이 제공되지 않고, 대출이 거절되거나 극단적으로는 금융시장이 경색되어 작동하지 않기도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러한 경제적 마찰 요인을 극복하여 금융시장이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은행은 고객에 대한 정보부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대출금리를 높일 경우 위험 고객만이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역선택'), 대출을 받은 후에 고객의 행태가 위험해지는('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 금리를 높이기보다는 신용 할당을 하게 된다(Stiglitz and Weiss 1981). 그렇지만 은행이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생산해서 대출 결정에 활용한다면 이러한 정보비대칭에 의한 마찰 요인은

극복될 수 있다. 은행은 사전에 차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등을 통해 위험고객의 역선택을 걸러낼 수 있으며, 대출 실행 후에는 차입자가 부적절한 투자 등을 하지 않도록 상환행태 를 모니터링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특히, 고객이 특정 은행과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은 은행이 고객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 금융거래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amond 1991; Petersen and Rajan 1994).

전통적으로 관계형 금융은 거래형 금융(Transaction banking)과 구분하여 주로 중소기업 에 대한 대출에서 혜택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관계형 금융은 당해 은행에게만 제공되는 차주 고유정보를 이용하여 대출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거래형 금융은 자본시장 등에 공 개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회사와 차주 사이에 일정 거리(Arm's length)를 두고 관계 보다는 거래에 중점을 두어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은행이 관계형 금융의 독점적인 거래관계를 악용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서 거래 중소기업은 관계형 금융을 통하여 대출금리의 인하 또는 가용자금의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Petersen and Rajan(1994)은 관계형 금융이 대출금리에 유의미한 영향 은 없지만 자금의 가용성을 증대시켰다고 결론내렸으며, Berger and Udell(1995)은 강력 한 관계형 금융은 대출금리의 인하와 함께 담보요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수영 외(2021)는 2016년 및 2017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 석한 결과, 은행-기업 관계가 강할수록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기업의 대출거 래은행 수가 적을수록. 주거래은행 대출비중이 높을수록 대출금리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관계형 금융의 혜택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Bharath et al.(2009)은 관계형 금융을 통하여 10~15bp 대출금리 인하의 혜택이 있 지만, 기업규모에서 상위 30% 기업들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관계형 금융의 혜택이 나타나 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채에 대한 외부신용평가 등급을 갖고 있거나, S&P500 지수 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에도 관계형 금융의 혜택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 개된 기업정보가 부족하고 불투명한 중소기업에서 관계형 금융이 적합하고, 자본시장에 공개된 정보가 많고 투명한 기업의 경우에는 거래형 금융이 더 적합함을 시사한다.

나. 개인대출심사와 정보비대칭성

대환대출 인프라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정보비대칭에 의한 금융이론을 적용하여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2가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정보비대칭에 의한 관 계형 금융의 혜택에 대한 논의가 기업대출이 아닌 개인대출에도 적용 가능한가이다. 전통 적으로 관계형 금융의 혜택에 대한 논의는 기업대출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만일 개인대 출에 대하여도 관계형 금융의 혜택이 있다면, 대환대출 인프라에 의한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회사가 특정 차주와 지속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차주에 대한 정보를 생산할 유인을 저 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인대출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있어 관계 형 금융이 거래형 금융보다 유의미한 혜택을 가져오는가이다. 관계형 금융은 금융회사가 독점적 거래관계를 통하여 고객의 이익을 편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형 금융을 통한 차주에 대한 선별 기능에 의한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면 관계형 금융 행태의 개인대출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의 개인대출 시장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가 개인신용평 가회사(Credit Bureau; 이하 'CB'라 함)의 신용점수를 통하여 표준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정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 관련 정보도 거래 은행이 독점하지 않고 마이데이터와 오픈뱅 킹을 통해 금융회사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경우 신용위험 평가 기능이 뛰어난 금융회사보다는 비용효율성이 뛰어난 금융회사가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환대출 인프라는 개인이 보다 효율적인 금융기관에서 낮 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경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여신심사 기능 저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앞서 논의한 것처럼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관계형 금융의 혜택을 고려할 때 대환대출활성화는 이론적으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서 1) 개인대출에도 관계형 금융 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개인대출의 관계형 금융 혜택이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개인대출의 관계형 금융 논의 적용 가능성

전통적으로 관계형 금융은 기업대출에 대한 이론으로 발전되었다. 다만, 개인대출의 경우 에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관계형 금융 논의 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게 보인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대환대출 인프라의 적용대 상이 되는 개인대출에 대하여도 정보비대칭에 의한 관계형 금융 혜택에 대한 논의를 적용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 2가지로 뒷받침될 수 있다.

첫째, 상당 부분의 개인대출이 자영업자의 사업자금과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은 2023년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잔액을 1,034조 원으로 집계하였는데, 이 중 364조 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에 대한 가계대출이고 680조 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다.16) 2023년 3월 말 현재 가계대출이 1,740조 원에 달하므로 가계대출(개인대출) 중 약 20%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에 주로 적용 되었던 관계형 금융 논의를 개인대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다.

둘째, 해외에서의 소비자대출에 대한 관계형 금융 분석사례를 들 수 있다. Puri et al. (2017)은 2004~2008년 중 독일 296개 저축은행의 1,068,000건의 소비자대출을 대상으 로 관계형 금융의 혜택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 관계 형 금융은 은행의 선별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고객의 대출신청이 수락될 가능성이 다른 고 객에 비하여 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금계좌를 보유한 관계형 금융 고객의 경 우 신용대출 접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관계형 금융 고객 특성과 부도율이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객의 거래계좌를 갖고 있는 관계 형 금융 은행은 예금계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대출한도를 조정함으로써 고객의 부도 율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관계형 금융으로 취득한 사적 정보를 통제한 이후에도 관계 유무가 부도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이 은행과의 관계를 가치있게 평가하여 가급적 부도를 내지 않으려는 유인이 작동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Puri et al.(2017)은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소매금융 고객 과 일정 관계를 맺을 경우 부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고객으로 하여금 저축예금 또는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유의미하게 부 실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실증분석이 독일 저축은행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¹⁶⁾ 한국은행(2023. 6)

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환대출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대출 및 가계대출의 경 우에도 정보비대칭에 의한 관계형 금융 혜택에 대한 논의를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개인대출에 있어 관계형 금융 혜택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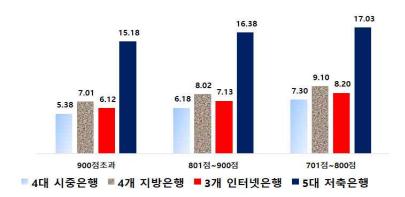
1) 금융회사별 대출금리 차이와 원인

완벽한 정보하에서는 차주의 신용도가 금융회사 간에 공유되고, CB가 정한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정해져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자본시장에서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외부신용등급이 발달하여 관계형 금융보다는 거래형 금융이 더 적합한 것처럼, 개인에 대한 CB산업이 발달하여 신용정보의 양과 질이 제고되고 정밀도 높은 신용점수가 광범위하게 공유될 경우에는 개인도 관계형 금융보다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금융회사 간 가격경쟁을통하여 비용효율적인 금융회사로부터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만 CB 신용점수대별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금융회사별로 금리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1〉은 전국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2023년 6월 기준으로 공시된 금융회사별 신용대출금리를 4대 시중은행, 4개 지방은행, 3개 인터넷은행 및 5대 저축은행의 4개 특성별로 그룹을 묶어 산출한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금융 그룹 내에서는 신용점수가 낮아질수록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일관성은 있으나, 금융 그룹 간에는 역전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4대 시중은행의 801~900점대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금리는 6.18%에 불과한 반면, 지방은행 및 5대 저축은행은 모두 900점 초과 점수를 갖는 우량 개인고객에 대하여도 6.18% 보다 높은, 각각 7.01% 및 15.18%의 신용대출금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만일 CB의 신용점수가 신용리스크에 비례하여 점수가 낮아지도록 정합성을 갖고 있고, 금융회사가 신용리스크에 비례하여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책정하며, 고객이 자신의 주어진 신용리스크에서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쟁적인 시장이 조성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금융 그룹 간 금리 역전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 Ⅲ-1〉은행 및 저축은행의 신용점수대별 개인신용대출 금리 현황

(단위: %)



자료: 은행연합회 및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금융회사별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2023년 6월 기준으로 산출함

이러한 금융권역별 신용점수 금리역전 현상은 2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대출 시장 의 실질적인 분할과 비용구조 차이의 고착화이고, 둘째는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를 생산하 는 금융회사의 선별 능력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대환대출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대환대출 활성화가 심사 능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가) 대출 시장의 분할과 비용구조의 차이

고객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제한되어 있다면 신용도에 따라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쟁시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객의 금융회사 선 택이 제한적이라면 금융회사 또한 고객별 신용점수에 상응하는 예상 대손비용(Credit cost) 외에 대출채널별 대출모집비용 및 광고비용 등을 조달금리에 가산하는 마크업 방식 으로 금리를 책정하고자 할 것이다.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금융권역별로 취급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 저축은행의 개인신용 대출 금리 수준이 시중은행에 비하여 높은 것은 대손비용의 차이쁜 아니라, 조달금리가 은행에 비하여 높은 데다 광고 등 영업비용에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융회사가 외부의 대출중개인 또는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023년 상반기 기준 금융회사가 토스, 카카오

페이, 네이버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등 5개 주요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하여 대출을 취급할 경우 은행권은 평균 0.34%, 제2금융권은 평균 1.44% 정도의 대출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에 더하여 〈그림 Ⅲ-2〉와 같이 금융권별로 개인신용대출의 대출중개 플랫폼 의존도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2022년 7월 기준 은행이 5.0%에 불과한 반면, 저축은행은 5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0.5% 10.0% 5.0% 2.4% 2.9%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그림 Ⅲ-2〉 금융권역별 개인신용대출의 대출중개 플랫폼 의존도(2022년 7월 기준)

자료: NICE평가정보

저축은행이 은행과 동일한 신용도를 가진 고객에 대하여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더라도 대출증개 플랫폼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경우 수수료만큼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저축은행은 대출증개 플랫폼보다 수수료가 큰¹⁸⁾ 오프라인의 대출모집 인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대출모집 광고에도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으므로 그만큼 대출금리 책정에 있어 비용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고객과 동일하게 양호한 신용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가능한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비용효율성이 낮은 금융회사에서 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있다면, 가급적 대출가능 정보를 알려 경쟁을 통해 금융회사의 비용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대화대출

¹⁷⁾ 헤럴드경제(2023. 10. 16), "2금융권, 대출비교 플랫폼 효과 봤다"

¹⁸⁾ 헤럴드경제 보도에 의하면 2023년 상반기 중 제2금융권이 오프라인 대출모집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2.62%(1.000만 원 대출 가정)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1.44%)의 1.8배에 달함

인프라가 낮은 수수료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고객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해 금융권의 효율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관계형 금융을 통한 고객정보 생산의 차이

만일 금융회사별로 고객과의 관계 방식에 차이가 있어 고객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실질적 인 심사 능력에도 차이가 있거나 신용계층별로 심사 능력에 있어 비교우위가 다르다면, CB로부터 동일한 신용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금융회사별로는 다른 금리가 적용될 수 있 다. 예컨대 폭넓은 고객기반을 갖고 있는 시중은행은 평소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 객의 입출금 내역 등을 기초로 고객의 대출금 상환가능성에 대하여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시중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금융회사의 심사가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 피기 위해서 CB의 개인신용평가모형과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신용평가모형의 차이에 대 하여 먼저 살펴보고, 금융회사 간 변별력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① CB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한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CB를 통해 신용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현재 한국신용정보원 1개가 있는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으 로부터 대출, 연체, 신용카드 개설, 세금체납, 파산면책정보 등을 집중 관리하고 동 정보를 금융기관과 CB 등에 제공한다.19)

CB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정보와 함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통 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개인신용평점을 산출한다. CB로는 NICE평가정보와 KCB 등이 있다. 개인신 용평점은 금융회사가 대출실행, 카드 개설 등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참고지표로 활용하거나, 일반기업체가 대리점 관리, 신용거래개설, 통신 다회선 이 용 등의 의사 결정 시 참고지표로 활용된다.20)

¹⁹⁾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²⁰⁾ NICE평가정보 홈페이지

일반적으로 개인신용평가모형은 금융회사의 내부데이터가 얼마나 충분한지에 따라 일반 모형, 업권모형, 고유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종윤 2019).

첫째, 일반모형(Generic model)은 특정 금융회사의 자체 데이터나 특정 업권의 축적된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체 금융소비자를 모집단으로 일반적인 부도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CB의 개인신용평점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업권모형(Pooled model)은 금융회사 자체 고객만으로 개인신용평가모형이 개발이 어려울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모형으로 금융회사 외부의 CB가 보유한,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금융업권의 고객들을 풀링하여 모형을 구성한다. 통상 안정성 및 변별력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고유모형(Customized model)은 금융회사 자체 내부 데이터가 완전하고 충분하여 자체 고객만으로 개인신용평가모형을 만드는 것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 및 상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최적의 모형 개발이 가능하다. 이때 외부 CB 정보는 일부 제한적으로 반영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은 고객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고유모형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업권모형 그리고 CB 개인신용평점 순으로 나타난다. 충분한 고객을 확보한 대형 시중은행은 고객층이 한정적인 저축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보다 고유모형 구축을 통해서 심사 능력이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 간 신용평가 변별력의 차이21)

실제로 금융회사 간의 신용평가 변별력에 차이가 있다면, 같은 점수대의 CB 개인신용점수별 사후 부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하여 NICE평가정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림 Ⅲ-3〉은 CB 신용점수 구간별로 전 은행 및 4대 시중은행, 3개 인터넷전문은행 및 5개 지방은행의 2020년 1월~2022년 2월 중 취급한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사후 부도율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 신용대출을 보면 시중은행의 부도율이 0.24%로 전 은행 평균 0.32%보다 낮고, 인터넷전무은행 및 지방은행은 각각 0.40% 및 0.89%로 전 은행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²¹⁾ 금융회사 간 신용평가 변별력의 차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NICE평가정보 이상원 매니저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음



주: NICE평가정보에 집중된 2020년 1월~2022년 2월 중 취급된 <u>다음을 제외한</u> 개인신용대출의 대출실행 이후 12개월 이내 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 등재 및 CB 연체 90일 이상의 부도 건수 기준 부도율

- 정책금융, 카드론, 할부·담보대출 상품
- 대출금액 1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 미성년자·외국인·스코어미산출자·기부도
- 직장인 외 차주

은행그룹별로는 신용도별 분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신용대출의 부도율 차이로 은행그룹별로 대출심사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점수 구간별로 은행그룹 간에 부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다. 신용도가 800점 이상인 4개 구간에서는 전체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시중은행 - 전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지방은행 순으로 부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개인신용점수가 800점 미만인 개인신용점수 구간에서는 지방은행의 부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신용점수 800점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이 전 은행은 87.6%, 시중은행 92.3%, 인터넷전문은행 83.4%, 지방은행 7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일부 중저신용자대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지방은행이 심사 능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신용대출에서 시중은행의 부도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은행그룹별 부도율이 전 은행 부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 귀무가설: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실행 건수 기준 부도율이 은행그룹 간에 동일하다.

- 대립가설: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실행 건수 기준 부도율이 은행그룹 간에 차이가 있다. 검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2가지의 검증 방법론을 사용하였다.²²⁾

〈표 Ⅲ-1〉 검증방법론 및 검정통계량

검증방법론		검정통계량		
이항검증	스코어구간별	Diff = norm.s.inv(0.975) $\times \sqrt{p(1-p)/n} \Rightarrow p(평균 PD) \pm Diff$		
카이제곱 검증	전체 스코어구간	$\sum_k (np-D)^2/ig(np(1-p)ig)$, $k=$ 스코어구간수, $D=$ 부도건수		

이항검증의 경우 신용점수 구간별로 전 은행 평균부도율에 검정통계량(Diff)의 값을 더하거나 뺀 값의 범위에 특정 은행그룹의 평균부도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5%의 유의수준에서 부도율에 차이가 있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표 III-2〉는 이항검증 결과이다. 앞서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대부분이 이뤄지는 800점 이상의 개인신용점수 구간에서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의 부도율은 전 은행 부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²²⁾ 동일한 신용등급에서 부도율에 차이가 나는 원인은 금융회사별 사전적인 선별능력의 차이뿐 아니라, 금융회사별 대출금리의 차이로도 설명 가능함. 금리가 높으면 상환부담이 늘어 부도율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임. 본고의 검증 은 금융회사별 금리차이를 통제하지 않고 시행되었기에 가설검증에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둠

〈표 Ⅲ-2〉이항검증 결과

통계량(Diff)				검증 결과(유의수준 5%)		
신용점수구간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950~	0.01	0.01	0.03	기각	기각	기각
900~949	0.01	0.02	0.03	기각	기각	기각
850~899	0.02	0.03	0.04	기각	기각	기각
800~849	0.05	0.08	0.09	기각	기각	기각
750~799	0.14	0.18	0.17	채택	기각	채택
700~749	0.32	0.40	0.40	기각	채택	기각
~699	0.72	1.11	1.18	기각	기각	기각

자료: NICE평가정보

카이제곱 검증은 카이제곱 누적분포 함수분포표에서 각 구간별 통계량을 합산한 값과 구 간수(7)의 자유도의 값을 통하여 얻은 누적확률이 유의수준(5%)보다 작은 경우에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표 Ⅲ-3〉은 카이제곱 검증 결과이다. 검증 결과, 시중은행, 인터 넷전문은행 및 지방은행 모두 전 은행의 부도율과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표 Ⅲ-3〉카이제곱 검증 결과

시오저스그가	통계량				
신용점수구간	시중은행	인터넷전 문은 행	지방은행		
950~	17	6	74		
900~949	113	44	325		
850~899	151	42	407		
800~849	92	63	102		
750~799	2	12	0		
700~749	60	0	29		
~699	112	58	48		
합계	547	226	985		
검증 결과	기각	기각	기각		

자료: NICE평가정보

다. 분석에 따른 소결

CB의 개인신용점수가 동일한 개인에 대하여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및 저축은행은 각각 신용대출금리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금융회사 간비용효율성의 차이 또는 여신심사 능력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개인의 저금리대출이가능한 금융회사에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비용효율성이 낮은 금융회사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고객을 오랜 기간 확보하여, CB가보유하고 있는 공개된 신용정보 외에 예금계좌의 현금흐름 및 직업, 소득, 재산 등 신뢰할수 있는 추가 정보를 활용하여 고유모형(Customized model)을 통해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선별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정보비대칭에 의한 관계형 금융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순으로 신용대출금리가 낮은 것은 대체로 부도율의 낮은 순서와 일치한다. 이는 금리 차이의 상당부분이 신용리스크 선별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는데, 실제로 동일한 CB 개인신용점수 구간에서 금융회사 간 여신심사 능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신용대출이 이와 같이 정보비대칭에 의한 관계형 금융 특성을 가진다면, 대환대출 인 프라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예금계좌 활동 등 고객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의 축적 및 고유모형 개발에 의한 정도 높은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만일 특정 고객과 오랜 관계를 형성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은행이 충분한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구축한 개인신용평가모형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다른 금융회사는 이 은행보다 조금 낮은 금리를 제시하며 대환대출을 유도할 유인이 있다.

정보비대칭의 관계형 금융 특성을 가진 경우 대환대출 인프라는 우량한 금융회사 간에 우량고객 빼앗기 싸움을 격화시킬 소지가 있다. 예컨대,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순으로 (같은 CB 개인신용점수 구간 내에서) 실질적인 고객 신용리스크가 낮게 나타난다면, 대출금리 수준이 낮은 시중은행은 자신이 고객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지방은행 및 저축은행 고객의 신용도를 확신할 수 없어 낮은 금리를 제시하며 대환대출을 유도하기 어렵다. 또한, 지방은행 및 저축은행은 이미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

객의 신용리스크는 낮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예금조달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데다 대출모집인과 대출중개 플랫폼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대출광고를 많이 실시하여 비용효율성이 낮은 상태에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하며 대환대 출을 유도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시중은행 간에는 다른 은행의 여신심사 능력에 대하 여 신뢰가 있다면 추가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도 낮은 금리를 제시하여 대 환대출을 통해 고객 확보경쟁을 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기반이 일 정 규모에 도달할 때까지 초기비용을 무시하고서라도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으 므로 시중은행 간의 경쟁에 합류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바람직한 작동 방향은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여 비용효율성이 낮 은 금융회사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이 비용효율성이 높은 금융회사에서 낮은 금 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 간 비용효율성의 격차와 함께 정보비대칭의 관계형 금융 특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우량고객 확보를 위한 시중은행 및 인 터넷전문은행 간의 고객 빼앗기 경쟁만 격화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고객 빼앗기 경쟁은 당장은 당해 우량고객에게 금리하락의 혜택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고객정 보 축적을 저해하여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환대출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효율성이 낮은 금융회사의 고객 대출 을 비용효율성이 높은 금융회사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우량고 객 확보를 위한 은행 간의 고객 빼앗기 경쟁이 여신심사 기능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 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대환대출의 실제 운영성과와 여신심사 기능 저하에 대한 업계 면담 결과

대환대출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살피기 위하여 2023년 9월 6일~9월 7일 중 대환대출 관련 업계 담당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 대 체적으로 2023년 5월 말 도입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는 등 대환대출 인프라 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었다. 〈표 Ⅲ-4〉는 여신심사 기능 관련 제기 된 문제점에 대한 업계 의견을 요약하였다.

〈표 Ⅲ-4〉 대환대출 여신심사 기능 관련 문제점에 대한 업계 면담 의견 요약

문제점	본고 기설	업계 의견
고신용자 중심으로 활발	정보비대칭에 따른 관계형 금융 특성으로 인하여 은행 간 고객 빼앗기 발생	① 은행 고객군과 제2금융권 고객군의 구조적인 분리 ② 후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전략적 고객 빼앗기 ③ 금리 상승기조 및 PF 부실화로 인한 제2금융권의 소극적인 대출태도 ④ 채무통합 대환대출의 불허로 인한 고객수요 미충족
신용평가 기능의 저하 가능성	관계형 금융 기능이 저해되어 신용평가 기능 역시 저하될 수 있음	신용평가 기능 저하는 제한적 ① 고객 빼앗기는 정보비대칭성이 낮은 급여생활자 위주로 발생 ② 기존 주거래은행의 고객에 대한 혜택이 미흡 ③ 마이데이터 활용 시 금융 플랫폼의 신용평가 기능 보완 가능성

업계 담당자들은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를 쓰고 있는 중·저신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보다는 제1금융권 내 고신용자 간의 이동이 주로 활발한 것을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앞서 정보비대칭과 관계형 금융의 특성으로 인해 시중은행이 제2금융권 등의 고객에 대하여는 충분한 추가 정보 없이는 신용도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는 반면, 다른 시중은행의 고객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신용검증에 통과되었다는 생각에 고객 빼앗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업계 담당자들이 지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 고객군과 제2금융권 고객군이 완연히 구분되어 구조적으로 권역 간 이동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배경으로는 은행이 중저신용자를 포용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이 고신용자 고객만으로 충분히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신용도가 불확실한 고객을 추가적으로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은행 간 고객 빼앗기 경쟁이 활발한 것은 후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전략적 상황에 기인한다. 우선, 급여통장이 개설되어 안정적인 예금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고객층이 부족한 후발 시중은행은 선발 시중은행으로부터 우량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환대출에 나설 유인이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늘리다 보니 리스크관리 목적에서 균형된 고객 확보를 위하여 시중은행의 고객을 데려오기 위한 대환대출에 적극 나설 유인이 있다.

셋째, 제2금융권 간에 대출이동이 부진한 것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기존의 대출보다 나은 금리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운 데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회사 등이 부동산PF 부실 등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화대출을 통한 대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형편이 되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금리 인하 등 금융조건이 완화되고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 성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제2금융권의 대환대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중저신용자 고객 입장에서는 개별 대출의 금리 인하를 위한 1대1 대화대출에 대한 수요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중저신용자는 금리보다 대출가능 한도가 더 중요한 경우 가 많은데, 낮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는 은행권은 중저신용자에게 충분한 대출한도를 제 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제2금융권에 여러 개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인 중저신용자의 경우 제2금융권의 여러 대출을 하나로 묶어서 신용도를 개선한 다음 은행 권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의 대환대출 인프라는 1대1 대환만 가능하고 채무통합을 위한 대환대출은 지원하지 않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 되었다.

한편, 개인신용대출의 정보비대칭성과 대화대출에 의한 신용평가 기능의 저하에 대해서 업계 담당자들은 가능성은 있으나 제한적이며, 오히려 향후에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 로써 금융 플랫폼의 신용평가 기능 보완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개인신용 고객층은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데, 급여생활자의 개인신용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되고 신용평가모델에의 반영도 정 형화되어 정보비대칭성이 크지 않은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정보비대칭성이 커서 금 융회사별로 평가 결과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23) 현재 은행 간 대환대출을 통한 고객 빼앗기는 그 대상이 주로 급여생활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고 객의 입장에서 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큰 반면, 실질적으로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신용 평가 기능의 저하 가능성은 작을 수 있다. 대환대출 활성화로 금리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이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을 늘리게 된다면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둘째. 국내 은행들은 급여통장 등을 보유한 주거래 고객에 대한 금리우대 등의 혜택 제공 이 미흡해서 대환대출이 활성화될 경우 신용평가 기능의 저하보다는 고객의 금리 인하 혜 택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대환대출이 활성화되어 기존의 우량 고객을 보 유한 금융회사 입장에서 고객을 지키기 위하여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적극 제공하여

²³⁾ 정보비대칭성의 차이와 관련하여 30년째 서울에서 유명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삼성전자에 10년간 재 직하다 퇴직한 고객보다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함

야 한다면 거래 고객과의 관계형 금융에 의한 신용평가 기능 개선에 따른 이윤을 금융회 사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고객이 마이데이터 활용 승인을 하여야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플랫폼이 마이데이터에 의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주거래은행에 못지 않은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다만, 현재 개인 신용평가 업무 인가를 받지 않은 대환대출 플랫폼 업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고객차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신용도를 평가하여 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직접 고객을 판별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통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동의한 마이데이터 정보만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업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객에 유리한 정보만 표본에 편입되는 등 표본의 편의가 있어 신용평가의 정확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는 저축은행 등 소형 금융회사는 플랫폼이 일정 부분 고객 선별 기능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부 플랫폼 업체는 마이데이터 겸업을 통해 신용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향후 마이데이터에 의한 신용평가 업무가 비록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여신심사 기능 저하 방지와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 운영 방안

이상의 논의와 업계의 의견을 감안할 때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회사 간 경쟁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실질적인 시장 분할 및 정보비대칭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데에는 제약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의 경쟁을 통해 대출업무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경감해 주면서도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대환대출 과정에서 고객 신청에 의거 마이데이터 및 오픈뱅킹을 통하여 보유 예금 및 대출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예금계좌의 현금입출금 내역 및 정보 및 직업, 소득, 재산 등 신뢰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플랫폼 및 대환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보비대칭성을 최대한 완화하여 대환대출로 인한 신용평가 기능 저하 효 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환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검증이 완료되었 다는 이유로, 또는 향후 플랫폼이 일정부분 신용평가 업무를 대행해 주었다는 이유로 자 체의 정당한 신용평가 절차 없이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대환대 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고객 동의로 추가적으로 확보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자체 대출 상품과 동일한 신용평가 절차에 의한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환 대출 상품에 대하여 별도의 완화된 신용평가 절차를 운영하거나, 신용리스크 수준에 맞지 않게 공격적인 금리를 제시하는 것은 대환대출 이외 일반 대출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고객 빼앗기 경쟁 과정에서 전반적인 신용평가 수준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보비대칭성이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 시 신용평가에 있어 오랜 거래관계에 서 파악 가능한 정성적 요소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는 등 관계형 금융 특성을 보일 수 있으 므로 금융회사가 대출실행 시 일정 기간 대출계약의 유지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 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은행이 주거래 관계에 있는 고객 중 소득이 불규칙하지만 정성 적 요인을 감안하여 대출을 결정하는 경우 대환대출 제한기간을 현재의 6개월보다 긴 1년 을 적용하거나, 일정 부분 페널티 성격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 출 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급여생활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표준화된 신용평가가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관계 지속에 따른 신용평가 개선 등의 이익을 금융회사가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래관계의 보호보다는 대환대 출 활성화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 6개월의 대환대출 취급 제한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환대출을 통해 다중채무자의 채무통합을 지원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개선하는 동 시에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중채무자는 우선 제 2금융권의 대출을 하나의 금융회사에 통합하여 신용도를 개선함으로써 은행권으로 대출 을 갈아타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며,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대출이 1개의 금융회사로 통 합되면 다른 금융회사 대출의 우선 변제 등의 우려 없이 신용리스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 로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1대1 대환이 아니지만 제2금융권의 대출을 통합하기 위한 대 환대출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향후 대환대출 확대 대상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담보와 보증으로 실질적 인 신용리스크가 매우 작아서 심사 기능 저하 우려가 적으므로 비용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초 대출 취급은행이 각종 시장조사와 담보설정 등에 소 요되는 초기의 고정비용을 대환대출로 회수하지 못 할 경우에는 대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객이 대환대출 시스템을 활용하여 금리 인하요구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대환대출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에 대하여 낮은 금리를 제시할 경우 고객은 대환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기존 금융회사에 제시된 대환대출 금리를 근거로 금리 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